

두산중공업(034020)

매수

목표주가 58,000원

주가(12/11) 33,500원

자기주식 처분으로 두산그룹 자금 조달의 피날레 장식

두산중공업 자기주식 950만주 처분

두산중공업은 전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보유중인 자기주식 1,680만주(전체 발행 주식의 15.8%) 중 56.5%인 95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 33,500원에서 할인이 없다고 가정하면 처분예정금액은 3,183억원이다. 자기주식 처분 가격은 평균 취득가인 12,300원보다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이다.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기존 216%(3분기 기준)에서 200%내외로 감소할 전망이다. 자기주식처분이익(세후 약 2,700억원으로 추정)은 자본항목에 직접 가산되고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두산 그룹의 부채비율 감소 노력의 일환

최근 두산 그룹은 두산건설의 전환상환우선주 4,000억원 발행 및 두산인프라코어의 GDR 4,212억원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도 금번 자사주 처분에 이어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두산그룹 계열사 투자에 있어서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가 주된 리스크였는데, 재무구조개선에 이어 영업측면에서 점진적인 턴어라운드 성공한다면 두산 그룹을 둘러싼 리스크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연말 수주 재개로 점진적 주가 반등 전망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58,000원을 유지한다. 현재까지 수주는 3조원 내외로 연간 목표인 10조원에 크게 못 미치나 12월에는 오랫동안의 수주 공백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원전 서비스 계약 4,500억원, 베트남 빈탄 석탄화력 1.3조원, 기타기자재 및 서비스 계약 1조원 등이 기대되어 최소 6조원의 수주는 달성 가능하다. 또한, 신고리원전 5,6호기(2.2조원), 베트남 응이손 석탄화력(1.6조원) 등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어 점진적인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

<표 1> 자기주식 처분 개요

일반개요	내용	비고
총 발행주식수(주)	106,158,256	
처분 전 자기주식수(주)	16,812,505	총 발행주식의 15.8%
처분 예정 자기주식수(주)	9,500,000	총 발행주식의 8.9%, 12일 시간외대량매매 통한 매각 예정
처분 후 자기주식수(주)	7,312,505	총 발행주식의 6.9%
처분 예정 금액(십억원)	318.3	12월 11일 종가 33,500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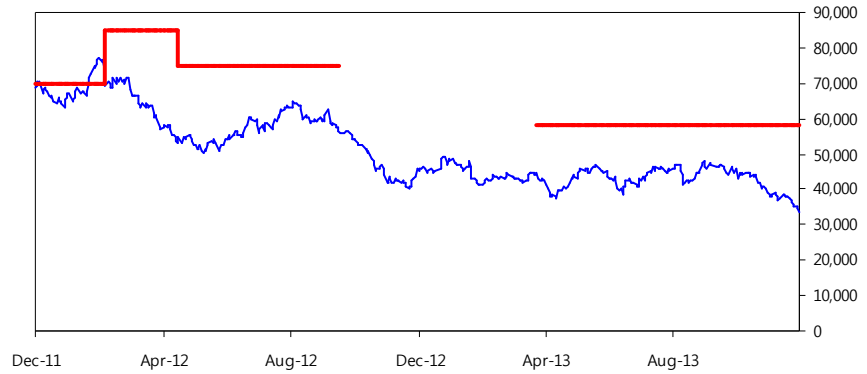
자료: 두산중공업, 한국투자증권

박민, CFA 3276-6175
richard.park@truefriend.com

조철희 3276-6189
chulhee.cho@truefriend.com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

종목(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두산중공업(034020)	2012.02.17	매수	85,000 원
	2012.04.27	매수	75,000 원
	2012.09.28	중립	-
	2013.04.04	매수	58,000 원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13년 12월 11일 현재 두산중공업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현 주가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

- 매 수 : 현 주가 대비 15%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립 : 현 주가 대비 -15~15%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현 주가 대비 15%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게 가져갈 것을 권함
- 중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